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문제지

제 1 교시

국어 영역(언어와 매체)

[35~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국어에는 하나의 단어가 둘 이상의 쓰임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하나의 단어가 둘 이상의 품사로 사용되는 현상인 품사통용도 이러한 경우 중 하나이다. 가령 '그는 세계적 선수이다.'의 '세계적'은 관형사이고 '그는 세계적으로 유명하다.'의 '세계적'은 명사이므로 '세계적'은 품사 통용을 보이는 단어이다. 또한 '그는 그저께 낮에 왔다.'와 '그는 그저께 왔다.'의 '그저께'는 각각 명사와 부사이므로 '그저께'도 품사 통용을 보이는 단어이다. 이처럼 명사와 부사로 품사 통용을 보이는 단어에는 '약간'도 있다.

품사 통용을 보이는 단어는 그 품사에 따라, 결합하는 단어가 달라지기도 한다. 가령 명사 '세계적'은 '으로'와 '이다' 등과 같은 격 조사와 결합하지만 관형사 '세계적'은 격 조사와 결합할 수 없다. 명사 '그저께'는 다양한 격 조사와 결합한다. 품사 통용을 보이는 단어는 다양한 문장 성분으로 쓰인다. 가령 명사 '세계적'은 격 조사와 결합해 문장의 부사어와 서술어로 쓰일수 있는데 관형사 '세계적'은 조사와 결합할 수 없고 항상 관형어로 쓰인다. 그리고 명사 '그저께'는 격 조사와 결합해 다양한 문장 성분으로 쓰인다.

그런데 국어에는 품사 통용을 보이지 않는 하나의 단어가 둘이상의 쓰임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먼저 ① 하나의 명사가 자립 명사와 의존 명사로 모두 쓰이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바람이 분다.'의 '바람'은 관형어 없이도 문장에 쓰일 수 있는 자립 명사이고, '그는 늦잠을 자는 바람에 회사에 지각했다.'의 '바람'은 관형어의 수식을 받아야만 문장에 쓰일 수 있는 의존 명사이다. 다음으로 ⑥ 하나의 동사가 본동사와 보조 동사로 모두 쓰이는 경우가 있다. '나는 힘을 내었다.'의 '내다'는 보조 동사 없이도 문장의 서술어로 쓰일 수 있는 본동사이고, '나는 고난을 견뎌 내었다.'의 '내다'는 본동사 없이는 문장에 쓰일 수 없는 보조 동사이다. 이를 통해, '바람'과 '내다'는 그 쓰임에 따라 반드시 필요로 하는 말의 유무가 달라짐을 알 수 있다.

35. 윗글을 바탕으로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내 생일은 그저께가 아니라 어제였다.'의 '그저께'와 '그저께 본 달은 매우 밝았다.'의 '그저께'는 품사가 서로 같다.
- ② '그는 세계적으로 매우 유명하다.'의 '세계적'과 '그는 그저께 서둘러 여기를 떠났다.'의 '그저께'는 품사가 서로 같다.
- ③ '첫눈이 그저께 왔다.'의 '그저께'와 '그는 세계적 명성을 얻었다.' 의 '세계적'은 품사는 서로 다르지만 문장 성분은 서로 같다.
- ④ '여기는 그저께 낮만큼 더웠다.'의 '그저께'와 '꽃이 그저께 피었다.' 의 '그저께'는 품사도 서로 다르고 문장 성분도 서로 다르다.
- ⑤ '그는 세계적인 선수이다.'의 '세계적인'과 '그는 세계적으로 매우 유명하다.'의 '세계적으로'는 모두, 명사에 조사와 어미가 결합한 문장 성분이다.

36.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一<보 기>一

- @~@의 밑줄 친 단어는 모두 둘 이상의 쓰임을 보인다.
- ⓐ 나는 급한 마당에 실수로 결재 서류를 휴지통에 버렸다.
- ⓑ 나는 약간의 시간이 남아 자전거 바퀴를 깨끗이 닦았다.
- ⓒ 작고 귀여운 강아지가 넓은 마당을 일곱 바퀴나 돌았다.
- ④ 산꼭대기에 구름이 약간 껴 가지고 경치가 좋아 보였다.
- ⓒ 나는 모임을 가지고 난 후 아주 급히 집으로 와 버렸다.
- ① '마당'은 ①에 해당되고 @에서는 자립 명사로 사용되었다.
- ② '약간'은 ①에 해당되고 ⑤에서는 자립 명사로 사용되었다.
- ③ '바퀴'는 ①에 해당되고 ⓒ에서는 의존 명사로 사용되었다.
- ④ '가지고'는 ①에 해당되고 ⓓ에서는 본동사로 사용되었다.
- ⑤ '버렸다'는 ⓒ에 해당되고 ⓒ에서는 본동사로 사용되었다.

37.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학습 활동>-

국어에는 ① 유음화, ① 'ㄹ'의 비음화, ② 구개음화, ② 음절의 끝소리 규칙, ② ㄴ 첨가 같은 다양한 음운 변동이 있다. 대부분의 표준 발음에는 이러한 음운 변동이 적용돼 있다. 그런데 음운 변동이 잘못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않아 비표준 발음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를 고려하여 [자료]의 ②~ⓒ가비표준 발음이 되는 이유를 설명해 보자.

[자료]

예	표준 발음	비표준 발음
ⓐ 인류가	[일류가]	[인뉴가]
ⓑ 순환론	[순환논]	[순활론]
ⓒ 코끝이	[코끄치]	[코끄티]
① 들녘을	[들녀클]	[들녀글]
e 봄여름	[봄녀름]	[보며름]

- ① @는 ①이 적용돼야 하는데 心이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 ② ⓑ는 ⓒ이 적용돼야 하는데 ۞이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 ③ ⓒ는 ⓒ이 적용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다.
- ④ ⓓ는 ②이 적용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다.
- ⑤ ⓒ는 ⑩이 적용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다.